

사·부·대·중

법다운 입산과 하산



주경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지금까지 살아온 세속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출가(出家)'를 위해 산사를 찾는다. 각기 결의와 사연을 가지고 입산(入山)한 사람은 '행자'로 불리며 반 년에서 1년 정도의 기초적인 학습과 수행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가 넘는 행자가 이렇저런 사연으로 다시 하산(下山)의 길에 접어든다.

행자는 아직 스님의 계를 받지 않은 까닭에 오고 가도 서투른 기록만 올리고 지우면 그뿐이다. 사람에게 따라 자신의 출가 경험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일로 모두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하지만 사미(尼)계나 구족계를 받게 되면 종단에 의해 승적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계법에 의해 공시 스님이 되는 것이다. '스님'이 되면 계율과 교단의 규칙에 의해 살아야 한다. 옷을 벗고 나갈 때에도.

부처님 당시 순타리 난다라고 일곱 차례나 스님의 계를 받은 분이 있다. 속가의 인연이 다하지 않아 일곱 번이나 재출가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교단은 스님이 환속하더라도 일곱 번까지 재출가를 허용하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의 단기출가제도도 활성화된 것은 재출가를 위한 환속(환계)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에서 그 한가지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환속의 개념은 있어도 환계의 개념이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이다. 계를 받아 부처님의 법복을 입을 때는 법다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만 옷을 벗을 때는 아무런 과정과 절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삼 년쯤 보이지 않으면 '나갔나 보다' 하고, 나중에 입소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얼마 전 도반들과 환계에 대한 가벼운 분위기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환속하여 나간 사람들의 '승도' '속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익히 보아온 경험이 있는지라 어떤 형태로든 '환계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올해 시행하고 있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승려분한신교'가 혹 말없이 승복을 벗어버린 환속자나 환속을 해야 함에도 승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된 '환계법'의 시행으로 법다운 하산의 길을 여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21세기 삶의 방식 바꾸는 불교”

인터뷰

한국 방문 개리 스나이더 교수

9월 27일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을 가득 메운 제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초청 연사를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선한 눈빛의 미국인 할아버지가 세미나실에 들어섰다. 개리 스나이더(Gary Snyder, 70). 세간의 언어로 선(禪)을 노래하는 시인, 네바다시(市) 인근 불교생태마을의 종장.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문명적 대안임을 노래하고 실천해 온 수행자. '선(禪)의 세계, 시(詩)의 세계'를 주제로 40여 분간의 강연을 마치고 강연장을 떠나는 그에게 불자로서, 시인으로서, 생태철학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물었다.

—선생님은 시인이자 수행자입니다. 두 영역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요?

▲시를 쓴다는 것과 정신집중(명상)은 모두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것이죠. 명상이 내적인 성찰이라면, 시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명상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고, 시를 쓴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전자는 깨달음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 어느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와 명상이 풀림과도 같이 오래되고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와 불교는 반드시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이후 수많은 선지식들은 깨달음의 순간을 '계(偈)'라는 특별한 장르에 담아 노래해 왔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의 노래는 후대 수행자들에게 경탄과 사랑을 받습니다. 수세기 전 티베트 선지식의 노래가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출판된 책들은 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사들과 수행자들은 늘 시를 써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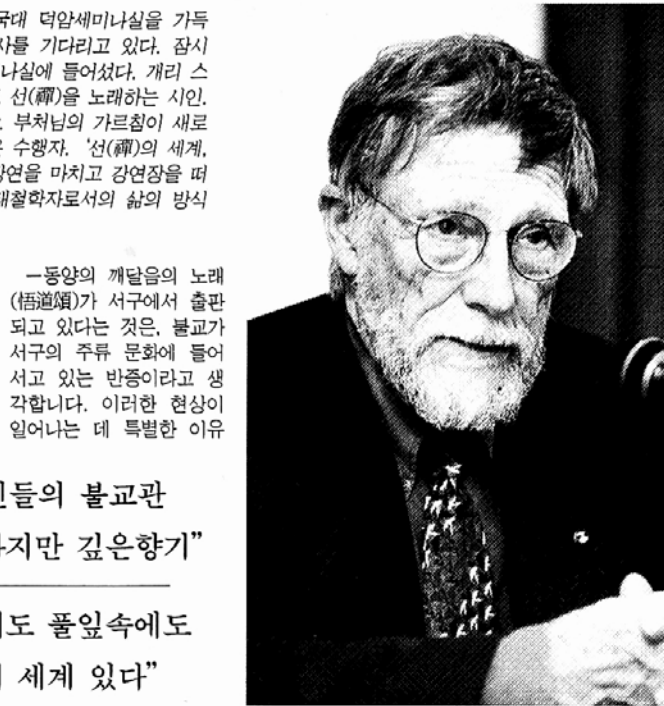
—고은 시인이 본 스나이더 “삶의 주제 ‘공존공생’”

1997년 겨울 버클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불교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적이었던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일찍부터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된 가치와 온갖 사물에 익숙해 있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상극적(相剋的)인 일부로서의 인간 존재를 허용하고 있는 자연 그 자체가 그의 사상이었다.

그는 늘 생존과 상응, 합류와 일치를 향해 가고 있다. 공존공생이야말로 그에게는 오래된 삶의 주제였고 흑과 백, 동과 서의 각 종족들의 깊은 곳에 담겨 있는 문화들을 아우르는 무아무성(無我無性)이, 그가 도달한 경지이기도 하다. 그가 열어 보이는 무성(無性)은 자성(自性)이거니와 그것은 본질적인 것까지도 넘어서야 하는 근본으로서의 자연 그것이다.

—동양의 깨달음의 노래(悟道頌)가 서구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것은, 불교가 서구의 주류 문화에 들어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에서 불교는 19세기말부터 동양의 선지식들에 의해서 강하게 어필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 스톱키 로시(일본 스님)가 있었다면 지금은 달라이 라마(티베트 스님)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인들이 불교에 주목하는 부분은, 예전의 전통으로 경험할 수 없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면입니다. 더욱이 이면에 다가서는 방법(수행)이 더없이 손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불교에 대해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매년 명상 캠프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불교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명상과 같은)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관찰



개리 스나이더 약력

193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 리드 대학, 인디애나-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문학, 인류학, 동양어문학 전공. 1960년대 대부분을 일본에서 선불교 연구. 1974년 <저복성>으로 풀리처상 수상. 1983년 <도끼 자루>로 미국우도수상 수상. 현재 미국 UC Davis 대학 문학교수.

주요 작품으로 <신화와 텍스트>, <파도를 바라보며>, <물없는 강산>, <휴집의 은신처> 등 13권의 시집과 <오래된 방편들> 등 2권의 수필집이 있다. 국내에는 <무성>과 <아름다운 삶>이 출간됐다.

—선생님이 미국 네바다시 지역에서 '생태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법제라는 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부처님의 생생관은 우리 주변 모든 것, 모든 곳에 투영됩니다. 구름 속에도, 불 속에도, 풀잎 속에도 생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태철학은 문화와 같은 의미의 '삶과 죽음의 바퀴'로 돌아가는 자정능력 즉 '신진대사'의 존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의 신진대사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육도중생이란 모든 정신적 생물적 존재입니다. 생태철학자로서, 나아가 불자라면 그 동물과 같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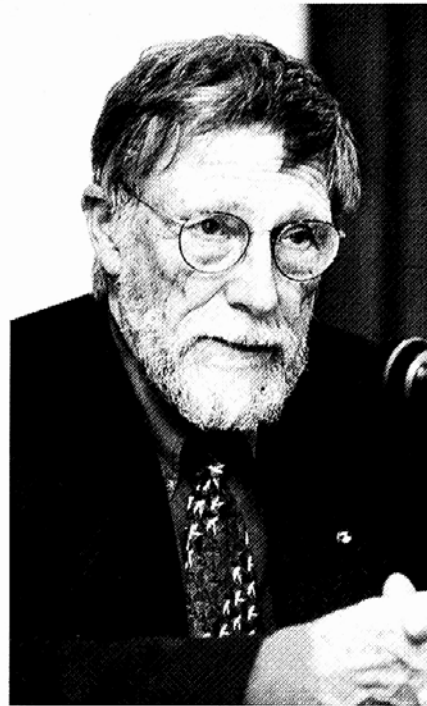
—선생님은 불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있어 불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님께 예물을 올리고 명상을 하며, 틈틈이 경전을 읽습니다. 신심을 놓지 않고 계속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심에 대한 실천이죠. 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배움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출간한 <우주의 한 곳(A Place In Space)>은 수십 년간 경전을 읽으며 모았던 문구를 묶은 것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것 역시 부처님에게 배운 '보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나라에 속하나 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인으로서 예전에 결코 말지 못했던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깊은 향기의 꽃이라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꽃의 향기를 담배 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21세기의 대안(代案) 문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세간의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대안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반성하며, 변한 모습으로 21세기를 맞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일종의 법계(法界)에 다가서는 일입니다. 옛 선지식은 “산은 나라에 속하나



개리 스나이더 약력

193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생. 리드 대학, 인디애나-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문학, 인류학, 동양어문학 전공. 1960년대 대부분을 일본에서 선불교 연구. 1974년 <저복성>으로 풀리처상 수상. 1983년 <도끼 자루>로 미국우도수상 수상. 현재 미국 UC Davis 대학 문학교수.

주요 작품으로 <신화와 텍스트>, <파도를 바라보며>, <물없는 강산>, <휴집의 은신처> 등 13권의 시집과 <오래된 방편들> 등 2권의 수필집이 있다. 국내에는 <무성>과 <아름다운 삶>이 출간됐다.

—선생님이 미국 네바다시 지역에서 '생태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법제라는 틀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부처님의 생생관은 우리 주변 모든 것, 모든 곳에 투영됩니다. 구름 속에도, 불 속에도, 풀잎 속에도 생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태철학은 문화와 같은 의미의 '삶과 죽음의 바퀴'로 돌아가는 자정능력 즉 '신진대사'의 존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의 신진대사에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육도중생이란 모든 정신적 생물적 존재입니다. 생태철학자로서, 나아가 불자라면 그 동물과 같이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제입니다.

—선생님은 불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있어 불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님께 예물을 올리고 명상을 하며, 틈틈이 경전을 읽습니다. 신심을 놓지 않고 계속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심에 대한 실천이죠. 또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항상 생각합니다. 배움에 대한 실천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출간한 <우주의 한 곳(A Place In Space)>은 수십 년간 경전을 읽으며 모았던 문구를 묶은 것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것 역시 부처님에게 배운 '보시'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산은 나라에 속하나 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서구인으로서 예전에 결코 말지 못했던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깊은 향기의 꽃이라 해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꽃의 향기를 담배 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21세기의 대안(代案) 문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세간의 물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대안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반성하며, 변한 모습으로 21세기를 맞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일종의 법계(法界)에 다가서는 일입니다. 옛 선지식은 “산은 나라에 속하나

목탁소리

불교미술대전 '유감'

이은자 <취재2부 기자>

사실 30년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불미전은 그동안 일부 심사위원들의 인맥에 의한 수상자 선정, 공모 방침의 무원칙한 변경과 반복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 일부 불교미술인들 또한 창조적인 창작활동으로 불교미술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전통작품의 모사에 그치거나, 영리목적에 의해 불미전을 이용하기도 해서 빈축을 샀다. 이번 불미전은 작품 귀속 문제로 일부 미술인들이 불참하면서 전통분야의 참가작품 수가 지난 17회 때보다 상당수 줄어, 결과적으로 수상작의 질적인 퇴보를 불러 오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측은 나름대로 공모방침을 확고히 준수해 운영하면서 내실을 다졌고, 진흥에서도 앞으로 이 방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불미전의 공신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 귀속 방침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켜, 응모작의 출품 수와 질을 떨어뜨리고 불교미술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9월 28일 수상자 발표를 마친 제18회 대한민국의 불교미술대전은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를 던졌다. 논란의 발단은 작품귀속 문제였지만, 심사방법의 합리성과 공정성 문제, 주최자와 개최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주최자인 조계종과 불교미술인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진정한 불교미술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한 채 알가알부의 수준에서 그친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

(ejlee@buddhopia.com)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용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문문  
4×6배판(크라운판) / 1,620면(42g미세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고급 양장 양장 제본/인조가죽 커버

이제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길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재복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계팔난·판재구설·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 단세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 불사회향·회갑·진감·철순·49재·100재·영가친도를 위한 범공양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 바로 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 (02) 734-7614, 739-8745 FAX (02) 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